



**애향장학금 5백만원 전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4일 속초시를 방문, 이병선 시장에게 애향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 원주~강릉 고속鐵 ‘일감 몰아주기’ 무더기 기소

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본보 9월22일자 1면 보도)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브로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책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김현철)은 4일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간부 등 14명 설계변경 맡기고 뇌물 수수 친척이 임원인 업체에 하청 검찰 “몰수·추징 통해 환수”

계변경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등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최모(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철도시설공단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단 강원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설계에 오류가 확인돼 원 설계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다른 업체인 A사에 설계변경을 맡겨 그 대가로 A사 실재시주 김모(60)씨로부터 3,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권모(48)씨는 같은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설계업체 선정은 입찰 등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반면 변경 설계업체는 공단 간부 추천만 있으면 선정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로 이 같은 ‘뒷돈’ 로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원 설계업체가 부담해야 할 재설계비용 4억3,500만여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

더욱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발주처

인 공단의 직원이 시공사에 특정 업체를 추천할 경우 당연히 하청업체로 선정되는 불법 관행도 확인됐다.

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김모(54)씨는 2014년 B, C업체에 자신의 삼촌이 이사로 있는 D전력에 7억6,0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해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공단 간부들이 받은 금액과 김씨 등 업체 관계자들이 가로챈 설계변경비를 몰수·추징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원주=김설영기자



**대한건설협회 도회, 속초 애향장학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는 4일 이  
병선 속초시장을 방문해 애향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건협 강원도회,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5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강원도 속초시 지역협의회(회장 장우정) 회원들과 함께 4일 이병선 속초 시장에게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500만원을 전달했

다고 밝혔다.

강원도회는 이날 속초시 지역협의회 회원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새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사 체감경기 두달째 ‘내리막’

9월 CBSI 77.2... 올들어 최저

건설사들이 느끼는 9월 건설시장 체감경기가 올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7.2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7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홍일 경영금융연구실장은 “통상적으로 8월 흑서기가 끝나면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과 전월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있다. 하지만 9월 CBSI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신규공사 지수 하락과 주택공사수주 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 부문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100)는 지난달과 같았고, 중견기업(76.7, 2.1포인트 하락)과 중소기업(51.2, 2포인트 하락) 지수는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올해 1월(47.9)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소재 기업(92.1)이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해 지수가 소폭 개선됐다. 반면 지방기업(56.5)은 3.5포인트 하락해 지방 기업의 침체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5.6포인트 높은 82.8을 기록해 9월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실장은 “통상 10월에는 9월보다 CBSI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9월 CBSI가 1월을 제외하고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도 일부 작용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